

# 순천시 여성친화도시 우수 정책 전국적으로 인정받아

### 허석 시장, 여성안전 분야 우수사례 발표



허석 순천시장은 지난 4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 '여성가족부 여성친화도시 안전 분야 우수사례 공유·확산을 위한 간담회'에 참석해 순천시가 펼치고 있는 여성안전 분야의 우수사례를 소개하고 여성친화도시 사업을 공유했다.

'여성친화도시'란 지역의 정책과 발전 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

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들에게 골고루 돌아가도록 여성의 일자리, 돌봄 및 안전 정책을 운영하는 자치단체를 말한다.

이날 간담회는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및 관계자, 허석 순천시장을 포함해 총 6곳의 여성친화도시 지자체장과 전문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각 지자체의 지역 안전을 위한 환경 조성사업에 대해 소개하고

각 지자체에 우수사례를 확산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순천시에서는 지난 2016년부터 추진 중인 위급상황 발생 시 미리 지정해놓은 사람이나 경찰서에 위치가 전송되어 비상 출동할 수 있도록 하는 '순천 안심동행' 어플리케이션 시스템 운영과 여성안심택배보관함 운영(6개소), 전통시장 이용 어르신 승차차도우미 운영 등을 우수사례로 소개했다.

허석 순천시장은 "앞으로도 안심동행 어플리케이션과 연계한 '택시안심귀가 서비스'와 '여성이 만드는 마을안전지도(커뮤니티맵)' 제작을 하반기에 추진할 것이며, 민·관 협력체계를 강화해 우리 지역에 특화된 여성 안전사업을 발굴해 나갈 것"이라며 "안전을 포함해 여성친화도시와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우수사례를 각 지자체가 지속적으로 공유·벤치마킹하며 주민들의 삶의 질을 한층 더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순천=김승호 기자

## 영광군 축협 ASF 사태 불구 '출장 강행' 비난사

8박10일 일정으로 미국 방문  
예산·일정표 공개 요구 목ual

영광군 축협과 합평축협이 태풍 '타파'가 큰 피해를 줄 것이라는 예상과 국가적 재난인 아프리카 돼지열병(ASF) 사태가 이어지는 비상 시국에 미국 방문에 나서 맹비난이 일고 있다.

특히 영광 축협은 10일간의 미국 방문 일정표와 출장비 내역을 일절 공개하지 않고 취재한 기자에게 폭언과 모욕으로 일관하고 있어 조사료 직접 구매를 위한 미국 방문을 방자한 '외유성 출장' 아니냐는 의구심을 낳고 있다.

영광 축협 임원에 따르면 영광 합평 축협은 지난 9월 19일부터 28일까지 8박 10일 일정으로 조사료 직접 구매와 품질 확인차 미국 방문에 나섰다.

영광 축협은 조합 예산을 들여 미국을 방문함에도 불구하고 조합장의 미국내 일정과 예산 규모에 대하여 일절 공개하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강은 영광군 축협조합장은 취재진에 전화를 걸어 "미국 방문에 관한 어떠한 자료도 줄 수 없다"며 "너희들이 물어봐서" 등 폭언도 서슴지 않았다.

이처럼 조합측이 취재에 과민

반응을 보인 것은 당초 방문 목적과는 다른 일정이 공개될 것을 우려한 것 때문 아니냐는 의혹마저 불러일으키고 있다.

조합원 A모씨(59·영광읍)는 "아프리카 돼지열병과 태풍으로 인하여 대부분의 공공기관에서 해외방문을 취소하고 있는데 영광축협만 해외방문을 강행한 것은 무슨 배짱인지 모르겠다"고 비난하며 "조합원 형제로 외유성 관광이 의심되는 해외 다니라고 축협 조합장으로 뽑아 준 것은 아닐까"라며, 당초 방문 목적에 맞는지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영광=서희권 기자

## 여수시, 미세먼지 민간감시원 30명 모집

여수시가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물질의 불법배출을 막기 위해 민간감시원 30명을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민간감시원은 여수국가산단과 건설현장에서 미세먼지, 악취, 폐기물 불법소각, 공사장 트럭 덮개 미설치 등을 순찰한다.

이와 함께 건설공사장 공사시간 변경·조정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공무원과 합동으로 자동차 매연 단속도 벌인다.

대상은 공고일 이전 여수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이다. 순찰활동을 수행해야 하는 만큼 신체가 건강해야 하고, 전문지식을 갖춘 산업체 은퇴자와 관련 자격증 소지자는 우선 선발한다.

감시원은 이달부터 12월 말까지 주 5일 8시간 근무하며, 보수는 급식비 포함 한 달 평균 200만 원 수준이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오는 14일부터 15일까지 구비서류를 챙겨

여수시 기후환경과로 직접 방문하면 된다. 구비서류 등 세부 내용은 여수시(www.yeosu.go.kr/) 고시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여수시는 1차 서류전형과 2차 면접을 거쳐 오는 28일 최종 합격자를 시청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환경오염물질 불법배출 사각지대 해소와 중장년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역량과 사명감을 가진 분들의 많은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여수=송기훈 기자

## 구례군,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구례군은 노후 경유차를 조기 폐차한 후 LPG 화물차로의 교체를 유도하여 배출가스를 저감하기 위해 LPG 1톤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조기폐차 지원기

준을 충족하는 경유차를 조기폐차한 후 LPG 1톤 화물차를 신차로 구매하는 차량 소유자 또는 기관을 대상으로 신차 구입비 400만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조기 폐차 지원대상은 배출가

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중 견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으로 지원 자격은 신청일 기준으로 구례군에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되고, 최종 소유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차량이다.

구례=박진호 기자

## 화순군, 불법 광고물 부착 방지시트 '효과'

화순군이 설치한 불법 광고물 부착 방지시트가 효과를 내고 있다.

군은 늘어나는 불법 광고물을 근절하기 위해 지난 9월 화순읍 시가지 주요 도로변의 도로 시설물(가로등, 전신주 등)에 전단지

벽보 등 광고물 부착 방지용 시트를 설치했다.

설치 구간은 유동인구가 많은 ▲광덕로(신기교차로~고인돌공원 교차로) ▲중앙로(KB국민은행~현대병원교차로) ▲차치샘로(중앙로 로터리~선관위앞 로터리) ▲

만연로(화순고려병원~금호타운 앞 교차로) ▲진각로(예쁜구제 가 구~군청민원실 앞) 도로변 가로등, 전신주 등 558개소이다.

부착 방지시트는 불법 전단지·벽보 등을 부착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시트지를 활용한 것이다. 시설물과 유사한 무채색 위주로 안전사고 방지 등을 고려해 제작했다.

화순=박순철 기자

## 곡성군, 청년농업인 전문가 현장상담 성료



곡성군이 지난 4일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현장 모니터링과 간담회를 실시했다.

청년농 영농정착 지원사업은 만 40세 미만, 영농경력 3년 이하의 청년 창업농을 선발하여 월 최대

100만원의 정착지원금을 최장 3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곡성군은 지난 2018년 7명, 2019년 9명 총 16명을 선발해 관리하고 있다.

현장 간담회에서는 청년농업 멘토 3명과 담당공무원이 16명의 청년농가를 방문해 영농지도 활동을

펼쳤다.

또한 농업 경영 컨설팅 전문가의 경영장부 사용 등 의무사항을 안내하고, 농업 애로사항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곡성군은 청년농업인의 의견을 반영해 튼튼한 농업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정기적인 간담회와 현장지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청년 농업인이 영농에 정착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 사업을 발굴하고 있다. 내년에는 경영실습농장을 조성해 영농경험이 부족한 청년농에게 임대할 계획이다.

경영실습 농장은 청년농을 위해 최적화된 현대식 스마트 온실로만 들어지며 임대료를 저렴하게 책정해 청년들의 영농실제 최소화에 도움을 줄 전망이다.

곡성=김광휘 기자

www.jepa.kr

### 전라남도비정규직노동센터를 운영했던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새롭게 도약합니다!

**중소기업진흥원은 중소기업 성장지원으로 행복공동체 구현을 목표로 기업들의 매출증대가 고용창출을 낳는 선순환 경영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전라남도 출연기관입니다.**

주소 |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3길 2(전남도청 옆)

- 무료법률상담**

  - 부당해고·임금체불 등 비정규직 근로자 노동 상담
  - 중대 사안 관계기관 진정
  - 구제신청 지원 및 의견제출(노동사·자문번호사)
  - 유관기관 연계를 통한 상담 무스 운영
- 취약근로자 권익보호·지원**

  - 근로조건 열악사업장 근로자 상담 및 법률지원
  - 감사단속적 근로자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 활동
  - 일용직 근로자 보호를 위한 임금체불 진정 상담 및 지원
- 최저임금·비정규직 차별신고센터 운영**

  -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최저임금 위반사례 접수
  - 비정규직 근로자 상담을 통해 차별적 요소 확인 및 시정 요청, 행정기관 법률구제 신청을 위한 서민적성 지원 및 법률 지원
- 노동법률교육**

  - 근로자 및 사용자 대상 노동법 및 노사관계관련 교육 실시
  - 비정규직에 대한 인식개선 및 적법한 인사관리방안 안내